

수시 확대·영어 절대평가... 맞춤 전략 필수

'폐과 위기' 조선대 문예창작과 신춘문에 잇단 당선... '제2 도약'

고 3 시기별 대입 전략
3월 연합평가 본격 레이스
6월·9월 모평서 실력 가늠
방학 댄 자소서·서류 준비

예비 고 3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년 입시 레이스의 시작점인 3월 새 학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올 수능시험(11월 16일)을 앞둔 수험생들 입장에서 영어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정시 모집인원 축소 등 굵직한 변화 등을 감안,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기에 앞서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화된 대입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학별 전형방법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도 필수다.
 광주·전남 교육청과 입시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시기별 주요 일정 및 대입 전략, 변화된 제도 등을 살펴본다.

■ 2018학년도 대입 주요 일정

3월 9일	전국연합학력평가
4월 12일	"
6월 1일	수능 모의평가
7월 12일	전국연합학력평가
9월 6일	수능 모의평가
9월 11~15일	수능 원서 접수(수시)
10월 17일	전국연합학력평가
11월 6일	수능
12월 30일~2018년 1월 2일	수능 원서 접수(정시)

◇수시 모집·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확대=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 모집의 확대다. 전체 모집인원(35만2325명)의 73.7%인 25만9673명을 뽑는 등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다.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선발 비율과 영역별 반영 비율은 학생들이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대폭 늘어난 점도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점수 중 교과(내신)성적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뉘는데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18학년도도의 경우 수시모집 정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3.6%로, 전년도(20.3%)보다 3.3%포인트, 2016학년도(18.5%)에 견줘 5.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정시모집 비중은 감소세가 확연하



고 3 수험생들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에 들어간다. 일선 교교 현장 교사들을 비롯, 입시 전문가들은 이 시기, 명확한 목표대학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학습 계획과 공부 습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9만2652명(전년도 10만7076명)으로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부 중심의 수시모집이 대입의 대세가 됐다는 점에서 수험생은 무게 중심을 수시에 두고 실패했을 때 정시에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학생부 빈칸 알차게 채워라=학생부 전형의 확대는 대입에서 내신 뿐 아니라 독서 활동, 동아리·봉사활동, 수상경력 등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만하다.
 교육부는 앞서 사전 등록된 교내상에 한해 수상 경력을 기록하도록 했고 소논문 활동도 학교 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한해서만 적도록 하는가 하면, 독서활동상황, 방과후 활동상황 등을 간소화하는 등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하는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감안, 동아리 활동을 비롯, 독서 이력과 진로 체험 활동 등 자신의 꿈과 희망한 전공학과를 위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했는가를 학생부에 채워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영어 절대평가 전환, 반영 비율 챙겨야=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렀던 수험생들은 영어 영역에서 당혹스러움을 경험했다. 2018학년도 영어 절대평가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쉬운 수능 기조에 맞춰 평

이하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가 난도가 높게 형성되면서다. 따라서 절대평가 전환을 감안, 영어 영역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여기에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는데 따른 대학별 반영 비율도 챙겨야 한다. 영어 영역의 성적은 한국어 영역과 마찬가지로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9개)만 제공한다.
 우선, 수시모집에서는 113개, 정시모집에서는 39개 학교가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한다.
 또 정시모집에서 188개 학교가 비율로 반영하고 19개 학교는 가점이나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반영기로 했다. 최저학력기준의 경우 대부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 여러 영역 등급의 합이 일정 기준 이내여야 한다는 식으로 설정됐다.
 정시모집에서는 비율 반영과 가점 혹은 감점을 부여하는 식으로도 활용된다. 비율로 반영하는 188개 대학 중 일부 학교는 영어 반영 비율을 2017학년도보다 낮췄다.
 건국대는 35%에서 15%로, 경희대는 25%에서 15%로, 연세대는 28.6%에서 16.7%로 영어 반영 비율이 낮아진다. 고려대는 1등급은 감점을 하지 않고 2등급은 1점을, 나머지 등급은 등급 간 2점씩 감점하는 방식이다. 서울대는 1등급은 감점이 없고 2등급 이하부터 등급당 0.5점씩 감점한다.
 ◇3월 9일 전국연합학력평가, 6월 1일

첫 모의평가=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전국 연합 학력평가는 고 3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이다. 특히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첫 시험이라는 점에서 '입시의 첫 단추' 나뉘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고 3 학생들이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이외 4월 12일, 7월 12일, 10월 17일 각각 경기·인천·서울교육청 주관으로 치러진다.
 6월 1일 첫 모의평가는 특히 중요하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모의평가로 재수생들이 합류하면서 더욱 정확하게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9월 6일 치러지는 모의평가는 본 수능의 출제 방향·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 수시 점수를 앞두고 목표 대학 지원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험이라 대비가 필요하다. 9월 모의평가가 8월 방학이 끝난 뒤 치러지는 만큼 방학을 잘 활용하는 게 수험생들에게 더없이 중요하다.
 수험생들은 방학을 활용, 수시 모집에 대비한 유불리를 분석하고 자기소개서와 각종 서류, 대학별 고시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조선대 문예창작과는 지난해 초만 해도 학교 구조조정 방안이 따라 '폐과' 대상에 오르내리며 없앨 1순위 학과에 꼽혔다.
 학교측은 당시만 해도 사회 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구조조정 방안이 문예창작과를 한문학과와 함께 국문과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초안을 내놓았다.
 문예창작과는 지역 내 '스타' 학과로 꼽혔던 만큼 대학 안팎의 총격파는 훨씬 컸다.
 당장, 동인문학상을 받은 학과장인 소설가 이승우 교수를 비롯, '제2의 김현'으로 불릴 만큼 미려한 문체가 특징인 문학평론가 신형철, 대표적 여류 시인 나희덕, 유현미 등 '스타' 교수들로 준비하다.
 해당 학과 출신 작가들도 국내 문학계에서 개성 넘친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소설집 '나', 장편 '바벨'을 펴내며 한 국문단의 기대주로 떠오른 작가 정용준, 1억원 상금의 중앙장편문학상(4회)을 수상한 이수진, 대산대학문학상(6회) 수상자인 오성용, 문학과 사회 신인상(10회) 수상자 김임지 등은 조선대 문예창작과의 명성을 이어왔다.
 이같은 점 등으로 인해 학교측이 신인

남부대 유아교육과, 교원양성기관 평가 'A'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남부대 유아교육과가 일반대 교육과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범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일반대 교육과 97개 기관 ▲교직과정 설치대 95개 기관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32개 기관 등 107개교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지역 대학들 중에는 일반대 교육과의 경우 남부대 유아교육과, 세한대 유아교육과가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은 광주여대 중등특수교육·유아교육·초등특수교육과, 남부대 초등·유아특수교육과, 동신대 유아교육학과, 세한대 기술·특수교육과, 호남대 유아

교육단신

내달 3일 교사 임용 합격 발표
 광주·전남교육청은 다음달 3일 중등 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최종 발표한다.
 광주교육청은 합격자 57명을 발표하

광주 고교 배정 내달 3일 발표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2017학년도 평준화 일반고교 신입생 합격자에 대한 추첨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신데렐라
 CHANNEL A 매주 금요일 밤11시
 이수근 강성연 김희철 문희준 최성국 김태우 한석준